

겨자씨

2020 Summer

올해의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목차

- 3 목사님 컬럼 - “전통과 혁신을 드라이브하며” / 이승태 목사
- 5 독자 작품 - “이승태 목사님 초상화” / 안혜성 자매
- 6 독자 컬럼 - “바이러스” / 엄두간 집사
- 9 간증문 - “광야의 42년” / 이충남 장로
- 10 독자 컬럼 - “만일 당신이 24시간 내에 죽는다면, 영원 속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 중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 김대산 집사
- 14 독자 컬럼 - “조현의 울림” / 광명철 집사
- 16 문화 산책 - “Loving Vincent (러빙 빈센트)” / 김상보 장로
- 21 독자 작품 - “엄마” / 엄두간 집사
- 22 단기 선교 - “페루 선교” / 김광섭 집사
- 24 우리의 기도 - “태국 선교 기도편지” /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
- 26 목장 이야기 - “호렘목장” / 서병도 장로
- 28 선교 통신 - “볼리비아 LAS CARTAS” / 고광문 선교사
- 30 교회 이야기 - “AKPC 마스크 팀 사역보고” / 최영미, 최란조 권사
- 33 간증문 - “새로운 걸음” / 이정민 집사
- 35 간증문 - “하나님 안녕하세요?” / 손성태 집사
- 38 간증문 - “아버지 학교” / 손인숙 집사
- 40 간증문 - “어느 한 순간” / 전춘우 집사
- 44 간증문 - “칭찬은 축복인가요, 아픔인가요?” / 김정민 형제
- 46 편집자 이야기 /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 48 2020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AKPC) 교육학교 조직도
- 50 AKPC 2020년 주요행사 일정표
- 51 AKPC 지역 광고

AKPC 겨자씨 문서 선교팀
제 2호 발행일 2020년 5월 29일

주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 512-454-1727
Fax 512-454-6888

발행인: AKPC 어스틴 한인 장로 교회

편집인: 광명철 김선욱 동지현 손성태 엄두간
오선주 이인권 전해나

E-mail akpc@akpc.org
Web <https://www.akpc.org>

목사님 컬럼

전통과 혁신을 드라이브하며



이승태 목사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 교회의 역사 또한 그것과 공통점이 있다.

전통과 혁신, 이 둘은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간다. 역사를 읽으면 분통이 터진다. 어처구니없다. 뒤집히고 그것은 또 뒤집힌다. 또 역사를 읽으면 상쾌하다. 비록 그것이 잠시라도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역사를 읽으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비참할 정도이다. 인생무상을 실감한다. 그리고 역사를 읽으면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만큼 신비롭다. 비굴하고 야비하게 살 것도 아니고 거만하고 안하무인으로 살 것도 결코 아니다.

아무리 전통을 강조해도 인간은 혁신을 거듭한다. 오히려 신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 지금의 미용 스타일, 의상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만일 지금도 상투 모양과 비녀 착용의 두발, 치마저고리나 바지저고리 그리고 두루마기를 일상으로 착용한다면 그래도 전통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바지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이미 우리는 혁신의 물결 속에 흐르고 있다. 아무리 혁신적, 개성적이라 하여도 여전히 전통적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내가 확신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구해야하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바꾸어져야 할 것이라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Reinhold Niebuhr의 기도이기도 하다.

목사님 컬럼

전통과 혁신을 드라이브하며

왜 우리가 전통과 혁신을 모두 드라이브해야하는가?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만나기 때문이다. 전통을 위하여 바쳐진 희생이나 혁신을 위하여 바쳐진 희생은 엄청나다. 무엇인가가 포기되지 않는 희생이란 없다.

그러나 그 대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관계와 역할이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바이러스는 무서울 만큼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다. 그런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다. 감정도 감염된다. 언어도 감염된다. 사상도 감염된다. 물론 행복도 감염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게 변화될 수도 있다. 상호관계나 주어진 역할이나 믿음의 활동에서 지금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어제의 전통은 오늘에는 혁신이 되고 오늘의 혁신은 내일의 또 다른 전통이 된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특징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서 그 초심을 지켜나가는 이야기이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람도 있다. 사람이라면 대체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가족일 수 있다. 어느 남편은 결혼 초부터 아내를 변화시키겠다고 작심하였다.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

은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바꾸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차라리 바꾸어야 할 대상은 자신이고, 자신부터 먼저 바꾸어 놓겠다는 결단이 더 빨리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싶다. 어떤 전통과 혁신은 다분히 그 근거가 인간적 냄새가 풍겨 날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전통과 혁신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인간은 그 도구가 될 때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냉엄할 수 있다.

부디 바라건대 전통과 혁신을 부여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의젓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다짐한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신앙의 사역에서 그리한다면 더 멋진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새로운 전환과 도전적 상황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목사 이승태

독자 작품

어스틴 한인 장로
교회 성도님들의
작품 | 그림

안혜성 자매



독자 컬럼

“바이러스”

엄두간 집사

인류가 목축업을 하다가 농업을 하면서 특정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횡으로 넓게 퍼져있었다보니 지역 간 농업기술이나 씨앗들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문명이 급속히 발전한 반면 종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지역은 그에 비해 문명의 발달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군요. 종으로 퍼져있던 지역은 기후의 차이가 그만큼 커서 식생작물의 종류나 경작 방법에 차이가 컸었기 때문이겠죠. 그에 따라 야생동물들의 가축화가 늦어졌으며 가축화할만한 동물의 개체수도 부족하여 동물로부터 전해진 다양한 균들에 적응할 기회가 적었던 아메리카 잉카제국은 지금의 안데스산맥을 따라 칠레에서부터 에콰도르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제국주의 침략에 재대로 한번 맞서보지도 못하고 전멸하는 사태를 맞았다니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세력과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세삼 깨닫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필요악처럼 우리 몸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된 바이러스의 종류는 그 수가 가히 엄청나며 우리 몸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먹는 바이러스까지 날로 그 수를 더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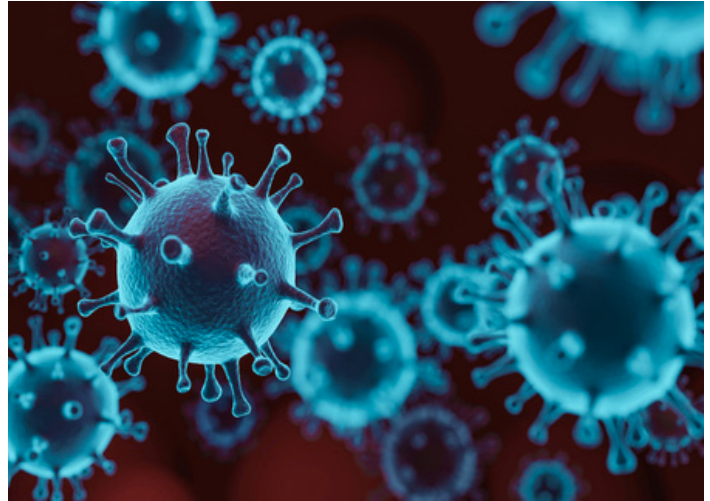
다. 문제는 육체의 바이러스는 당장 목숨과 관련이 있으니 치료제나 백신개발에 열을 올리지만 마음의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은 잘 깨닫지 못하고들 살아가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위시한 수많은 사이비 종교단체들과 요즘 한국사회의 병리현상 중 하나인 박사방이라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마음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한 적이 있나요?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 또한 마음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조금씩 알기 시작할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대인 공포증은 저의 학창시절을 괴롭혔던 마음의 바이러스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가 조금 심했었던지 길거리를 거닐 땀 땀만 보고 걷기 일쑤였고 표정도 무서웠던지 지나가던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물론 순탄치 못해 알코올에 의지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상사들과의 싸움에 말려들곤 해 삶의 궤적이나 방향설정이 힘들어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을 때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선을 볼 기회가 있었고 한 달여 만에 결혼 한 후 도미하였지만 순탄하지 못한 결혼생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서로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타국에서 아무런 잘

못도 없이 그 고통을 겪었어야 했던 아내를 생각하면 스스로 주체 못할 아픔을 가끔씩 느끼곤 하지만 그 시절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저와 아내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학위 취득을 위해 책과 씨름하는 것으로 순간순간의 아픔을 참을 수 있었지만 카톡은 물론이고 한국 방송, 국제전화도 힘든 시절, 하루 종일 좁은 아파트에 머물며 한마디 대화조차 나눌 이 없었던 아내의 절망감은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학업이 주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은데다 배운 적 없는 결혼생활의 고통으로 무너지려 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가장 약한 급소를 정확히 치셨고 마침 살던 아파트 주위에 있던 한국 교회에서 황원선 목사님을 통해 당신을 직접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첫 만남의 감동은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는데 대인공포증뿐만 아니라 제 속에 내재해 있던 삶의 쓴 뿌리도 서서히 뽑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고통스러웠던 삶의 모든 예감들이 조금씩 둔각화되며 서서히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었고 마침내 제 마음의 바이러스는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마음의 바이러스!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끝없이 마음을 쪼먹고 삶에 고통을 더하기 때문이죠. 마음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예수님이 아닐까요? 마음의 바이러스는 그러나 마음에 내재해서인지 가끔씩 그 세력을 다시금 떨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치료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치료제라면 언제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성령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너희는 세상에 팽배해있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사,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라” 는 말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적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이 믿음의 의사 간호사가 적으면 마음의 바이러스는 자꾸만 퍼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급기야는 이탈리아의 트리아제라는 군막사에서 행하는 환자분류 방법으로 아예 치료를 포기해야할 구제할 수 없는 영혼들이 늘어만 갈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영혼구제에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주위에 믿지 않는 한사람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말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치레나 반감이 두려워 말을 못 걸고 머뭇거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모,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고 한마디 건네 봅시다. 이 땅 전체가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더 이상은 복음이 무용지물인 좀비의 세상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세요.

코로나-19/국가비상사태 관련 교회 공지사항(2020년 5월 16일)

본 교회는 코로나 감염증 발생 억제 및 예방과 향후 교회의 단계별 Open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 내 감염 및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대응팀인 AKPC Health Task Force (위원장: 민동하장로)를 구성하여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및 본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교회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어스틴시의 5월 31일까지 연장된 Stay Home-Work Safe Order와 어스틴 지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한 대응팀의 추천안을 검토 및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은 5월 16일(토) 공지 즉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1. 5월 31일 주일까지 교회의 online예배 및 교회 활동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교회 출입시 방문시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3. 교회 출입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십시오.

담임목사 이승태

당회서기 이인권

광야의 42년

이충남 장로

매스컴보도에 의하면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wuhan)에서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통해 미국까지 확산된 가운데 4월 28일 현재 세계적으로 삼백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이십만 명이상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4종은 보통 감기로 추정되고, MERS는 6종, 코로나는(coronavirus)신종 7의 무서운 폐렴 병이라고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 예방센터는(CDC) 중국 우한 수산도매 시장에서 각종수산물 박쥐, 뱀, 닭 등을 판매하던 중 큰 박쥐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고양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발표하고 우한 비행장을 폐쇄하는 등 중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의 200여 나라들이 건강비상을 선포하고(Health Emergency) 딱히 해결방책이 현재까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과거 42년의 광야생활을 뒤 돌아보며 눈물이 글썽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했을까? 직장(IBM)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로 바쁘게 지내왔던가! 매일 8시간 후 2시간 내지 4시간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해주셨으니 고마우신 주 여호와께 감사 찬송(통합 66장)을 부르며 아침 가정예배를 꼭 드리고 출근했었다.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미국동료들이 묻는다. “왜 미국에 왔소?” 나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미국에 와 살라고 해서 왔소다.” 라고 대답하니 미국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는 나에게 농담이나 조롱을 하지 않았다.

“새해 Resolutions, 새해 각오가 무엇인가?” 새해 원단에 미국인들에 던진 질문에 미국인 90%가 “나는 몸무게를 빼겠다.” 라고 대답을 한단다. “2020 년 각오가 무엇이오?”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N. Y. Resolution이오.” 라고 대답한다.

AKPC 표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의 2020 년 각오 (RESOLUTIONS)이다.

독자 컬럼

“만일 당신이 24시간 내에 죽는다면, 영원 속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 중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김대산

이번 회에서는 필자의 이야기를 간략히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든 전도지(여러 종류로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음)를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특히 여행을 할 때 그러하다. 그런데 2018년도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전도지를 소지하는 것을 잊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동서가 편도선암으로 삼성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고 하여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고대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다. 불신자인 동서를 병문안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호텔라운지의 컴퓨터에 앉아 성경책을 보며 전도지를 만들었다. 이를 가지고 병실을 찾아가니 암 덩어리가 오른쪽 뺨과 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쾌활하고 웬만한 코미디안을 뺨칠 정도로 사람들을 웃기고 돈도 많이 벌던 그가 말이다. 치료라 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간호사가 와서 모르핀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이 전부였다. 병실은 6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환자실이라 복음 전하기에는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다른 기회는 없으므로 무조건 전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평소 기독교에 대해 알려지를 일으킬 정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동서라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가지고 간 전도지를 읽어 주는데 작지만 분명한 소리로(편도선암 덩어리로 인해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대화하고 있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도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고 내가 집에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죽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는 프랭크 제너처럼 그리고 존 웨슬리처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아래는 그 때 동서에게 전한 전도지 그대로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인생의 두 가지 큰 문제

1. (a) 죄 <--- 죄성
(b) 죽음 <--- 육체적, 영적 죽음

둘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비롯되었

다. 우리 스스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a) 죄성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18-24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b) 본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 죽음이 왔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왔다.

2.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a) 죄의 문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간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구약시대에는 무죄한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유효하였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b) 죽음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친히 입증해 보이셨다.

3. 죄와 죽음의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Yes 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기쁜 소식)이다.

4. 이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내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가 그 답이다.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노력, 선행, 고행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나의 공로는 0%이고 100% 예수님의 공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5. 다만 내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하고 돌아가시므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가 해결 되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나도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믿는데 있다.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한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25-2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에베소서 2:8-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 성경은 구원 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몸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하실 때에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복된 첫째부활이다 --- 그리스도의 심판석 .

데살로니가전서 4:13-17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7.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구원은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 나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로마서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 (기도) 나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 시드니 프랭크 제너

독자 컬럼

조현의 “울림”

곽명철 집사

BTS의 인기가 대변 해주듯이 변방의 음악으로 취급받던 K-POP이 몇 해 전부터 세계 팝음악과 문화의 무시 못 할 대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서양음악의 7음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해 정립되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영향을 받았던 중국의 전통음악들도 7음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음악에는 특이하게 5음계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한민족의 문화 창달력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아주 구별된 한국교회만의 특징과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몇 가지의 예를 들자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달하기 전부터, 자국어로 번역된 복음서들과 성경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회 전후 신도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새벽기도가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전통으로는 이웃 나라들에서 볼 수 없었던 높은 복음화율과 성령의 역사, 반상의 사회에서 교회를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양반과 평민들을 위한 출입문들이 두개인 교회 건축물들, 성경의 가로쓰기운동을 통한 반상문화의 타파, 본인들도 가난하지만 더 궁핍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매

일 저녁밥을 준비하기 전에 일정량의 성미쌀을 모으던 믿음의 어머니들의 손길 등입니다. 게다가 미국남장로교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의 2%정도가 다니는 교회가 일제의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립운동과 민족사랑운동의 전진기지역할을 감당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비록 그 끝자락에서 신사참배의 과오가 있지만, 한말의 국권수호운동을 필두로, 을사조약 철폐운동, 독립협회, 협성회, 만민공회운동, 국채보상운동, 또 일제하의 의혈투쟁, 신사참배반대운동, 3.1독립운동 등을 믿음의 선조들이 주도 했습니다. 즉 개신교의 항일운동사는 천주교나, 불교 혹은 유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도적이고, 가열찬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누군가의 개입이나 지시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의 유산들이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하나 둘씩 우리에게서 잊히거나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잊혀진, 아니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의 영성가들, 즉 이 땅의 작은 예수들 24인(권정생, 채희동, 장기려, 유명모, 김교신, 변선환, 이신, 김약연, 김재준, 최용신, 이승훈, 이찬갑, 유일한, 이

세종, 손임순, 이현필, 최흥종, 강순명, 이보한, 방애인, 김익두, 이용도, 김현봉, 대천덕)을 소개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계레신문의 한 종교전문기자가 10여년을 활동하면서 현장답사나 해당인물들의 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굴하고 기사화 했던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모아 2008년 말에 출간 한 책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인물 중 혹시 몇 분은 세상에 잘 알려졌지만 대부분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오랜 유교사회의 차별적 체제아래서 핍박 받고, 소외당하던 사회적 약자(여성, 노약자, 빈자, 상민, 고아 등)에게는 일대 ‘정신 혁명’이었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말 보다는 행동으로, 승리보다는 사랑으로, 외형적 화려함 보다는 투박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던 ‘작은 예수들’이 남겨놓은 숨겨진 보석들(영적 유산들)을 채굴하고 다듬어서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남겨줄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가보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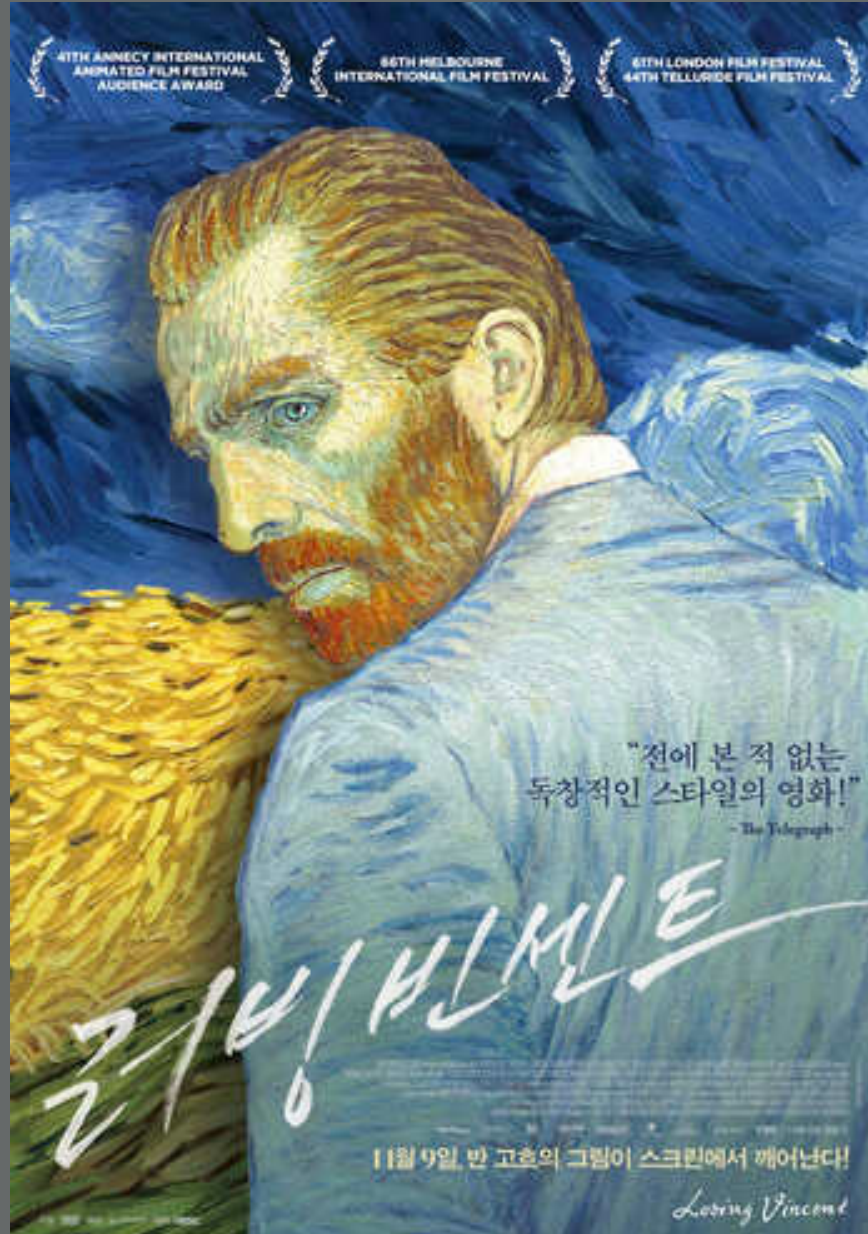
기독교는 민족의 요소를 담아낼 수는 있으나, 민족적 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에 진학한 후 CS 루이스, 존 스토틀, 프란시스슈퍼, 알리스터 맥그라프 등 서양의 거장들을 통해서 만났던 영적세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울림’과 ‘충격’, 그리고 한국근대사를 변화시킨 ‘야소교(예수교)’의 ‘토착 영성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기독교는 진정한 것이었고, 그들 영성은 순전했으며, 그들의 삶과 발자취는 갈수록 오염 되가는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잡이와 큰 등불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현지음]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없어붙은 이 땅에 뜨거운 발자국을 남기고 간 한국 기독교의 영성가들!
종교전문기자 조현이 복원한 한국 기독교의 예수들!**

우리민족의 기독교적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성을 지녀왔다. 그 다양한 영성 속에서 조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족의 영적 삶을 온전히 되살리고 노력했던 토착적 사상가들이다. -도플미디어

문화 산책
Loving Vincent (러빙 빈센트)
김상보 장로



아주 혁신적이고 전통을 일깨우는 독특한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이며 한국에서 좋은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화를 이용한 실험적 애니메이션을 창조한 영화이며 125명의 프로 및 아마추어 화가들이 참여, 무려 6만5천점의 유화들로 10여년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유화를 전공하거나 고흐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꿈만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는 범죄 추리극 내용이므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화면과는 대조적인 플롯으로 진행됩니다.

집배원 룰랭의 아들 아르망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일 여 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빈센트 반 고흐라는 무명화가의 마지막 편지를 고흐의 동생인 테오에게 전달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아르망이 테오의 근무지인 몽마르트 화구상에 도착했을 때 테오는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니 오베르 쉬 아즈로 가서 가세의사를 만나보라는 말을 화구상 주인인 피에르 탕귀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이에 덧붙여 탕귀는 고흐의 사망원인이 실패한 화가로 점철된 그의 정신적인 피폐일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래도 차분한 모습의 고흐가 8년 만에 조금씩 화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왜 자살을 택했는지 의문이라 전합니다. 오베르에 도착한 아르망은 빈센트가 임종을 맞았다는 라 부라는 여인숙을 찾아가 부모대신 가게를 지키던 딸, 아들린으로부터 고흐에 대한 일화를 듣게 됩니다. 그는 조용하고 친절했지만 피폐한 성격 때문에 동네 청년인 르네 세크레탕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과 그가 평소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가세박사의 딸 마르케리트와의 대화 이후 아르망은 그의 죽음에서 무언가 정상적인 자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 고흐의 부검을 담당했던 가세박사의 부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의사, 마제리 박사에게서 고흐의 복부충상은 자살로 보기에 부적합하며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고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된 아르망은 마르케리트를 찾아 가세박사와 고흐의 의문스러운 관계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듣습니다. 마르케리트는 그녀가 고흐의 예술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친이 둘의 만남을 금했으며 이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르망은 타살 가능성에 대한 그녀의 심증을 듣고자 했지만, 그녀는

“그가 죽은 이상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 과연 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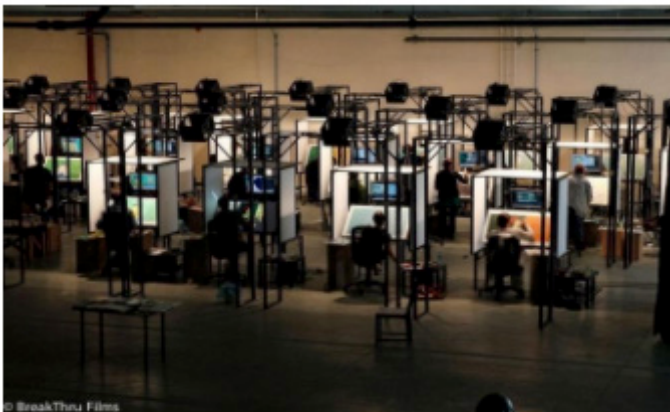
외출에서 돌아온 가세박사와의 만남에서 아르망은 차분함을 유지한 고흐가 어떻게 6주 만에 자살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세박사는 우울증의 영향으로 하루에 몇번씩도 기분이 바뀔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하지만 아르망은 혹시 딸 마르케리트를 고흐와 못 만나게 한 것이 그의 죽음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가세박사는 고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를르로 돌아온 아르망은 전해주지 못한 고흐의 마지막 편지를 아버지 조셉에게 읽어줍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바닥 중의 바닥 인생이지만 언젠가 자신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지 모두에게 보여줄 것” 이라는 편지 속 고흐의 다짐과 함께 영화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고흐의 모습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는 1930년까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었던 화란 개혁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의 목사님이셨고 어린 시절 고흐는 네덜란드 성경을 영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을 정도로 나름 신앙적이며 진중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던 정신상태로 인해 잠시 전도사로서의 활동도 멈춰야 했습니다. 본인의 일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주님의 축복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있

고 동생 테오의 권유로 화가의 길로 나섭니다.

2011년 풀리처 수상자이기도 한 작가 스티븐 나이 페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의 작품인 “Van Gogh: The Life”에서 고흐의 사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영화의 시발점도 이 책에서 엿볼 수 있는데 수많은 고흐의 편지 속에서 총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고흐의 총상 장소 나 여인숙 어디에서도 문제의 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총상의 영향이나 거리가 자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등을 제시합니다. 추론이지만 아마도 가난에 의한 물골, 정신병동 이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동들 등에 의해 오베르 시골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며 아무도 없는 밀밭에서 홀로 중얼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던 고흐를 놀리려는 목적으로 먼 거리에서 장난삼아 발사한 탄환에 복부를 맞고 사망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별이 빛나는 밤, 가세박사의 초상, 우편 배달부 롤랑,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 고흐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재현한 연출들이 수십 차례 등장하며 고흐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영화(러빙 빈센트)는 기존 예술가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화였다고 봅니다. 영화는 연기자를 남기지 않고 반 고흐 자체를 남겼기 때문이죠. 수많은 예술가들의 애정과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예술영화이며 제작 과정 또한 예술인 동시에 반 고흐를 위한 감동적인 퍼포먼스였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이 움직이며 1시간 반짜리 그림책과 같은 영화 “러빙 빈센트”를 추천 드립니다.

흥미로웠고 굉장한 이력을 가진 두 노배우의 며연기가 압도적이었으며 자칫 노회한 성직자들의 독백으로 지루해 질 수 있는 스토리를 유쾌함과 인간적인 모습을 비추어 잘 끌어가는 연출능력도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흥행에서 실패했으나 두 명배우와 각본가는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전통과 혁신, 영화는 우리 인간들의 대립을 결국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며 결국은 같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임을 제시하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전통을 일깨우는 독특한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이며 한국에서 좋은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화를 이용한 실험적 애니메이션을 창조한

영화이며 125명의 프로 및 아마추어 화가들이 참여, 무려 6만5천점의 유화들을 10여년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유화를 전공하거나 고흐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꿈만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는 범죄 추리극 내용이므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화면과는 대조적인 플롯으로 진행됩니다.

집배원 룰랭의 아들 아르망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일여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빈센트 반 고흐라는 무명화가의 마지막 편지를 그의 동생인 테오에게 전달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테오의 근무지인 몽마르트 화구상에서 테오는 6개월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화구상 주인인 피에르 탕귀는 그에게 오베르 쉬 아즈로 가서 가세의사를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이에 덧붙여 탕귀는 그의 사망원인이 실패한 화가로 점철된 그의 정신적인 피폐일 것이란 말과 함께 그래도 차분한 모습의 고흐가 8년만에 조금씩 화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왜 자살을 택했는지 의문이라 전합니다. 오베르에 도착한 아르망은 빈센트가 임종을 맞았다는 라부 여인숙을 찾아가 부모대신 가게를 지키던 딸, 아들린이게 고흐에 대한 일화를 듣게 됩니다. 그는 조용하고 친절했지만 피폐한 성격 때문에 동네 청년인 르네 세크레탕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과 그가 평소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가세박사의 딸 마르게리트와의 대화 이후 아르망은 그의 죽음에서 무언가 정상적인 자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 고흐의 부검을 담당했던 가세박사의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의사, 마제리 박사에게서 고흐의 복부총상은 자살로 보기에 부적합하며 타살 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고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된 아르망은 마르게리트를 찾아 가세박사와 고흐의 의문스러운 관계에 솔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부친인 가세박사가 그녀가 고흐의 예술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둘의 만남을 금했으며 이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르망은 타살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가 죽은 이상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 과연 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가세박사와의 만남에서 아르망은 차분함을 유지한 고흐가 어떻게 6주만에 자살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세박사는 우울증의 영향으로 하루에 몇번씩도 기분이 바뀔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하지만 아르망은 혹시 딸 마르게리트를 고흐와 못 만나게 한 것이 그의 죽음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가세박사는 고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를르로 돌아온 아르망은 전해 주지 못한 고흐의 마지막 편지를 아버지 조셉에게 읽어줍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바닥 중의 바닥 인생이지만 언젠가 자신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지 모두에게 보여줄 것” 이라는 편지 속 고흐의 다짐과 함께 영화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고흐의 모습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는 1930년까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었던 화란 개혁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 목사님이셨고 어린 시절 고흐는 네덜란드 성경을 영어, 독일어와 프랑스어

로 번역을 했을 정도로 나름 신앙적이며 진중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던 정신상태로 인해 잠시 전도사로서의 활동도 멈춰야 했습니다. 본인의 일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주님의 축복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있고 동생 테오의 권유로 화가의 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2011년 풀리처 수상자이기도 한 작가 스티븐 나이페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의 작 “Van Gogh: The Life”에서 고흐의 사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영화의 시발점도 이 책에서 엿볼 수 있는데 수많은 고흐의 편지 속에서 총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고흐의 총상 장소 나 여인숙 어디에서도 문제의 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총상의 영향이나 거리가 자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등을 제시합니다. 추론이지만 아마도 가난에 의한 몰골, 정신병동 이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동들 등에 의해 오베르 시골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며 아무도 없는 밀밭에서 홀

로 중얼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던 고흐를 놀리려는 목적으로 먼 거리에서 장난삼아 발사한 탄환에 복부를 맞고 사망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별이 빛나는 밤, 가세박사의 초상, 우편 배달부 룰랭,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 고흐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재현한 연출들이 수십차례 등장하며 고흐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는 기존 예술가 영화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화였다고 봅니다. 영화는 연기자를 남기지 않고 반 고흐 자체를 남겼기 때문이죠. 수많은 예술가들의 애정과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예술영화이며 제작 과정 또한 예술인 동시에 반 고흐를 위한 감동적인 퍼포먼스였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이 움직이며 1시간 반짜리 그림책과 같은 영화 “러빙 빈센트”를 추천 드립니다.



아르망역 배우 사진
20

반 고흐 원작

영화용 모작

독자 작품

어스틴 한인 장로
교회 성도님들의
작품 | 시

어 머 마

엄두간 집사

세상 태어나 만난 이름 하나 가장 편안
한 부를 때 가장 구성진 그래서 너무
눈물진
그 이름 엄마

나를 잉태하고 억척스레 먹이고 입히며 손이
다 해지도록 희생한 태어나 처음 부른
그 이름 엄마

환희와 절망에 공존하는 그 품이 평안하고 그
리운 그래서 눈감을 때 마지막으로 부를
그 이름 엄마

5월의 대지를 적시는 햇별을 받으며...

단기 선교

페루선교

김광섭 집사

선 교사님들의 발자취와 준비해주시는 하나님 선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부터 시작되는 기다림 속에 먼 타국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타국 땅에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지금은 비행기로 하루면 갈수 있는 거리이지만 예전에는 아무 가능성도 없이 향해의 길을 떠났을 이들을 생각하니 참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 때문에!”라며 떠나는 향해이기 때문입니다.

페루에 도착하여 본 첫 소감은 칙칙함과 앙상함이었습니다. 도시는 먼지로 가득하고 수도리마는 사람들로 분주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산에는 나무가 하나 없는 모래와 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위에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분위기였습니다. 페루에서도 선교사역지로 가는 것도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은 버스 운전사 때문에 1시간이상을 매일 기다려야했고 선교지로 가기위해 출발한 버스가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나 길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선교사역지에 도착하지 못해 모든 것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손길을 빌어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리마 외각의 산동네에 갈 때에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 공사로 인해 막혀 한참을 헤매다 결국은 인도자를 기다리며 차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에서 기다리며 이번 페루 주제곡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제목을 가진 스페인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인도자의 안내로 선교사

역지에 걱정 속에 늦게 도착하였지만 거기에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모여 선교사님의 지휘 아래 노방전도를 갈 때도 아이들이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였고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가 준비한 스킷과 sermon을 통해 Jesus es Salvad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며 십자가를 통과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과 언어가 아닌 눈빛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작은 진심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매번 사역지를 갈 때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태국 선교

기도편지

한준수/이옥희 선교사

사 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세계적인 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체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하고, 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살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계시록에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태국도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상점과 공공장소들이 문을 닫고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필수요원 외에 모두에게 자택격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전염병도 무섭지만 그로 인한 경제 붕괴를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데, 우리 카렌 난민 식구들과 람루까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부디 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웨이행 교회는 오래 전부터 기도해 오던 예배당 건축을 다행히 팬데믹 선언 전에 시작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온전히 저들의 힘으로 땅을 고르고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웠는데 가난한 성도들의 힘으로는 3년 정도 걸려야 겨우 건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후웨이행 교회는 ‘비’ 전도사(장로)와 ‘미미’ 전도사 내외가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어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지붕 공사와 창문 공사만 도와주면 1년 이내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성될 수 있기에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재료비 6백만원이 속히 채워지고, 꼭 필요한 화장실 공사 비용도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뽕룩 교회가 드디어 예배당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지역이라 3년 이상 사역했지만 믿는 사람이 적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10여명 이상이 매 주일 교회에 나온답니다. 이 아이들 중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블레’ 전도사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어준 건물이 협소해서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이들 교육 장소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뽕룩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블레 전도사 내외의 믿음과 지혜가 날로 성장하고 건강이 넘치도록,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람루까 교회는 2주째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Line Live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은 이미 국가를 봉쇄해서 모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심해지면 24시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 밖에는, 그리고 주님의 자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오늘도 무릎 꿇을 뿐입니다. 이 재앙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마지막 때의 경고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7일

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드림

79/190 Mu.4 BanFaapiyarom, Beungkamproi, Lamlukka, Pathumthani 12150, Thailand
태국 66-86-060-3355, 66-87-090-3355.

한국사무실 02-443-0883

미주사무실: 10582 Katela Ave.,

Anaheim, CA 92804, USA Tel.714-774-9191

email: hanleethailand@gmail.com, jun-soohan@hot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90818-929

GP 한준수 이옥희



자기들 힘으로 땅을 고르고 후웨이행 교회 예배당 건축 기둥을 세움. (오른쪽부터 비, 블레, 카우 전도사)



목장 이야기

호렘목장

서병도 장로

안녕하세요?
호렘목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목장은 30대 후반에서 60대의 다양한 나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때문에 60대가 된 것이지, 저를 빼면 50대 중반인데 말입니다

직업도 다양 하고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12명의 아이들, 21 명의 어른으로 대가족이 모임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중에 여러 가정이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이 있었으며, 지금은 한국으로 가신 가정이 3가정, 타지로 가신 1가정, 작년 말에 분가해서 2가정이 새로운 목장을 구성하여 나가심으로 지금은 참석 26

을 잘못하시는 가정을 포함해서 7가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가정은 5가정 중심으로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인도자가 있어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역시 목원 가정들이 돌아가며 예배기도와 식사기도를 진행 합니다. 말씀은 목자, 목녀가 진행하며, 1년에 한두 번씩은 목원들께 부탁드려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야외목장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 하는 목원들을 보면서 목자로서 나 자신의 신앙심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호렙 목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착하고,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회 식사 준비 할 때면 모두가 팔을 거두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60이 되던 생일에 목원들이 써프라이스(Surprise)를 해 주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갔는데 밖에 차들이 없어서 아직들 안 오셨나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복도에 양쪽으로 목원들 모두가 줄지어 서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시리로다!” 라고 외치던 백성들의 성경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생일 카드를 읽어보면서 너무나 목원들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목원들 차들은 다른 곳에 Parking해놓고 아무도 안온 것처럼 미리 준비함)

각 가정에서 내놓은 기도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처음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을 받아들이며 성경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진정으로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 합니다.

호렙가정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S CARTAS

Net Mission Community - Bolivia



**...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 90:2-3)**

많은 숫자의 예배자는 아니
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
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곳 볼리비아 오지에서 조차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지난 주부터는 교회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볼리비아에는 확진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다녀온 여행자들이었는데, 확진 확인된 후 지역 주민들이 길을 막을 정도로 험악한 상황입니다.

다행이 아직 볼리비아 확진자 수는 97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볼리비아의 의료 환경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해질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엇그제 교회 청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심방을 다녀왔는데 이유인즉슨 그분이 당뇨 환자인데 일반 링거를 주사해서 문제가 생겨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자 도시 빈민으로 살던 이곳 출신의 현지인들의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지자 3-4일씩 걸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며 이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는지 이곳에서 3시간 떨어진 동네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곳 현지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이곳의 작은 무리이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온 세계가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며,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 비전 선언문 -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은행명: 국민은행
구좌명: 고광문
구좌번호:
298702-04-071212



Pay to the Order of:
Net Mission Community
attn: Mr. Young J. Kim
612 Schooner Blvd
Williamsburg VA 23185

기도 제목:

1.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곳 성도들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창립 4주년 예배(4월 5일)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게 되어 대신 전도지와 음식을 준비해서 지역 주민 가정을 심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성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야기

AKPC 마스크 팀 사역보고

최영미 / 최란조 권사

2020년 3월 15일 어스틴 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도 1부 예배만 드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황의 심각성이 우리 삶에 깊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을 때, 친교 부 부원이신 박인자 전도사님이 마스크를 만들어 필요한 교인들에게 공급하자는 사역 제안을 하셨고, 단결 잘 하는 친교부 부장 김 송자 집사와 부원 최 영미 집사, 한 준혜 집사는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그날 오후 1 시 30분, 목장 목녀 단체 카톡방에 판매목적과 마스크 가격, 그리고 판매로 인한 수입을 선교, 의료 사역에 모두 헌금하겠다는 광고가 나갔다. 같은 날 저녁 8시까지 550개의 마스크가 주문되었고 우리 팀의 역량을 넘어 갈 까봐 선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다.

3월 17일 아침 9시, 박 인자 전도사님 댁에 친교 부원들 4명과 이 순회 집사 등 5명이 모였다. 기부된 천을 빨고 다리고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날 오후 2시쯤 마스크 사역팀에 강력한 프로 부부팀이 조인하셨다. Jack Brown사의 옷수선 가게를 맡아서 영업하시는 주상욱집사님과 주경림집사님이 당신들의 일을 마치고 전도사님 집에 오셨다. 이 분들은 재단된 마스크 천을 가져가셔서 상업용 재봉틀로 250개 마스크 봉제를 감당해 주셨다. 첫 주 오더의 50%를 감당해 주신 귀한 동역자부부이시다(사진 3,4 참고). 우리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서 돕게 하셨던 사도행전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의 사역도 이렇게 돕고 계심을 깊이 느꼈다.

다음 날 3월 18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손 맵시가 가장 좋고 빠른 최 난조 권사님께서 마스크팀에 조인하셨다. 권사님의 조인으로 마스크팀 사역이 얼마나 재미있게 진행되었는지.. 지금도 그 때 모여서 같이 동역하던 순간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때마다 봉사자들에게 잘 먹고 하라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김중호장로님, 김호진 권사님, 손인숙 집사님, 최병진 장로님, 이경화 집사님, 그리고 곁에서 마스크 고무줄을 끼워주고 재단을 도와준 최원지자매, 시훈 학생, 인수 학생 등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 봉사자들은 몸은 고되었지만 교인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3월 24일부터 어스틴시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유지와 칩거명령으로 마스크팀은 더 이상 모여서 마스크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단계로 나뉘어서 재단자가 자신의 집에서 재단하고, 그 다음 단계인

봉제하는 사람에게 건네면 봉제하는 사람이 받아서 자신의 집에서 봉제하고,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판매되었다. 지난번 목자목녀 단체카톡방에서 미처 주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위해서 마스크판매는 4월 13일까지 무인판매로 두 번 진행되었다. (사진 5). 이러한 과정 중에서 마스크 만드는 재료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천을 기부하여 주신 율리집사님, 박인자 전도사님의 이웃 할머니, 이옥란 권사님, 고무줄을 기부해 주신 정미숙 권사님의 도움을 기억한다. 또한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여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 김일선 목사님 가족과 허창도 목사님 가족들에게 보내 드린 황영순 권사님, 마스크 사역 지정현금을 해 주신 Canon CEO, 그 많은 마스크를 구입하셔서 필수요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오유원 권사님, AKPC 마스크를 가져다가 Travisso HOA를 통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판매해 준 Catherine Warren, AKPC 마스크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시고 판매를 도와주셨던 Snow Pea의 사장님이신 김인숙 집사님, 자신의 미용용품 사업체에서 마스크를 판매해 주시는 이종순 권사님, Jack Brown 을 통해 마스크 홍보를 해 주신 주상욱 집사님 부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 응원하여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 수 없이 많은 도움과 응원으로 이 사역은 강하게 진행되었다.

4월 13일까지 총 판매된 마스크는 1500개 이상이 되었고 \$4000 이상의 판매수입과 현금이 모아졌다. 모두 봉헌되어 선교사님과 어스틴의 난민 클리닉인 Hope Clinic을 재정적으로 돕는데 쓰였고 의료인들과 환자들에게도 마스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으

로 연결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의 교인들 한명 한명이 마스크를 만들고, 구입하고, 판매이익금이 귀하게 봉헌되고, 선교부에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모든 과정이 은혜 그 자체였다.

4월 14일 어스틴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우리 교인들이 지난 4주간 배포된 마스크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이다.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한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그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과 결과는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의 마스크 사역을 통해 당신을 깊이 경험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를 만들며...

Covid-19 바이러스!

요 고약한 놈 땀에 피해가 막급하다. 가게도 다 닫고. 강제로 당한 실업자들도 많다.

빨리 지나가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그동안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림고 감사함으로, 귀중함으로 다가온다. 귀한만남들이 참 감사했다.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이 절절히 느껴온다.

3월19일부터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 교회 마스크 만드는 팀에 동참했다 (3개 \$10.00 모든 수익금은 구제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본인, 가족, 친지 분들 것을 사고, 나눠주고 하는 모습에 힘을 얻었다. 구제에 성금 동참하시고, 마스크는 교회 문 앞에 진열하고. Drive through 판매하고, 역시 교회는 좋다. 우리 교인들이 좋다.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좋다. 경험하는 기회였다.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수도 없이, ㅎㅎ... 박아내고 고무줄을 끼우면서 이 마스크 쓰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박아 내려갔다. 거의 15일을 꼬박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서 재봉틀 모터를 밟아 내려갔다.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되겠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박아 내리라.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서 물러나고. 꺼지고. 모두 죽어 박멸되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모두 핫팅. 힘든 시기 서로 이겨냅시다.

정말로, 참으로, 진심으로, 무자게, 억수로, 많이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두 팔을 맘껏 제쳐

사랑합니다 ♡♡♡♡♡♡♡♡

새로운 걸음

이정민 집사

어느덧 짧지 않은 2년 8개월의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다시 서툴러진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며칠간 심한 감기 몸살 증세로 알아 누웠던 저는, 2017년 6월1일, Family Doctor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Seton 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을 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데리러 온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써 담담한척 하는 남편에게

“난 뭐든지 다 할거야, 걱정하지마”

라고 했을 때 남편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옆에서 지켜 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이런 저런 검사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떤 나이 많은 신사 분이 들어와 호구 조사를 하길래 누군가 했더니 제 담당의사 선생님이었고, 제게 급성 백혈병이라며 제 병명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5주간의 입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에 있었는데 이제 월체어에 몸을 실어 병실로 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김 하철 목사님 내외와 장로님들 내외가 달려와 주셨는데 쭈뼛쭈뼛 미안해서 못들어 오시던 장로님들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때부터 저를 위한 중보 기도와 사랑의 수고들이 수개월 간 계속되었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빛진 자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니 감기도 안걸리던 제가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겁을 먹을까 그런지 담당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며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무슨 이유인지 다 알수는 없지만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아무 질문도 의심도 실망도 슬퍼하는 마음도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이 길을 통과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건 평안뿐이었습니다. 제가 간구해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포근한 담요같이 덮어주신 아무 걱정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환자가 되면 아이같이 지기도 하는데 제가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없는 아이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할 부분만 감당하면 된다, 나의 할 일은 치료를 잘 받는 것이고, 나는 이 시간을 잘 통과할 것이다’. 이 모든 단순한 생각과 고요함, 명료한 목표는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 주신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 했습니다.

“네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남편은 하나님께,

“아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않게해주세요”

기도 하고는 병실을 나가 또 다시 울다 들어왔다 했고, 이미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 환자의 삶으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모습을 처음 본 저희 아이들은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했겠지요.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에게 입원 첫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꼭 통과할 것이라고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통

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넘어가야 할 돌부리는 있을지라도 너를 상하게 할 가시덤불은 놓지 않으시겠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며 1차 항암 치료를 Seton 병원에서 마쳤고, 2차 항암 치료를 휴스턴에 있는 MD Anderson 에서 6개월간 commute 하며 감당했고, 2년간의 연장 치료까지 2년8개월의 모든 치료 과정이 지난 12월 연말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 진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짧지 않은 이 여정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지휘하고 계셨고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에 감사하고 감동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 보니 그동안 저만치 뒷걸음 쳐져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걸음 내딛어 보려해도 그동안 서툴러진 발걸음 때문에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다시 소망합니다. 이 걸음이 서툴더라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어진 삶이 주님 앞에 담대하여 정한 길로만 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저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0년2월15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녕하세요?

손성태 집사

하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또 펜을 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지 50년이네요.

이제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침이면 아 ~ , 아브라함은 뭘 먹이셔서 100세 넘어서도 아들들을 낳았나? 나도 뭐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허락하신 사명들, 아들, 아빠, 남편, 집사, 목장사역.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나중에 혼날까봐 걱정도 됩니다.

승민이는 2학년 인데 과를 바꾸고 뭘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지난 주에는 다행이도 여자 누드화를 그렸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곧잘 그렸습니다.

동민이는 달라스에서 한과목만 들으면서 여자 친구와 정신없이 재미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둘다 저 보기에는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많이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숙이와 둘이 사는 것도 익숙해 진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예배후 성령 충만 받은것 같은데 오다가 차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차선을 바꿔라, 운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가 운전 하던지 따로 다니자고 했습니다.

아담은 정말 선약과 얹먹고 싶어 했는데... 그 변명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목장 섬기는 일도 매일 제자리걸음 같습니다. 주일 예배 목장 모임 빠지고 안 나오는 식구를 보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못 놓고 근근이 붙잡고 있습니다.

50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부지런한 부모님의 양육덕분으로 학교 잘다니고, 인숙이와 결혼하고, 미국도 오고, 동민이 승민이 낳고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 다니게 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삼았습니다. 제1기 오스틴 아버지 학교를 졸업 했습니다. 큰 감동과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감동이 되어 휴가를 내서 열흘 정도 한국에 가서 마산, 해남, 대전, 서울에서 친구들과 친척에게 성경을 주며 예수와 아버지 학교를 알렸습니다. 씨는 뿌린 것 같은데 싹이 났는지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것 제대로 써먹은 적도 있습니다. 2010년 이던가요? 회사에서 감원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침에 바로 집으로와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3학년 승민이 6학년 동민이에게 “아빠가 일터를 잃게 되어서 돈을 벌수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아빠는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실 거라 믿는다. 동민이 승민이도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며 어떻게 이겨 나갔는지 보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에게 숨기고 혼자 고민하는 아빠의 모습보다는 가족과 함께 헤쳐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하는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사실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동민이와 승민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좋은 하나님, 오래된 부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36

다. 딸 승민이 정말 예쁜데 중학교 때 치아교정 돌팔이 여의사를 잘못 만나 이를 4개나 빼서 턱 발육이 멈춘 것 같네요. 사랑니 4개 잘 자라서 턱도 다시 발육되면 하는데 어떻게 앓을까요?

아들 동민이는 너무 기름진 것을 좋아해 피가 너무 탁하다네요. 운동 많이 하고 음식 조절하라는데 제 말은 잘 안 듣네요. 몸무게 안 줄이면 결혼 승낙 안하려 합니다.

엄청 좋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시나요? 손칠만이에요.

아주 어릴 때 친엄마를 잃고 새엄마가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보내달라고 혈서 쓰고 가출도 했대요. 휴가 때 집에 빨리 오려고 밤에 산을 넘어 왔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첫째인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병원도 안가고 산파도 없이 혼자서 삶은 무명실로 묶고 가위로 잘랐습니다. 책에서 보고 실습했답니다. 엄마는 무서웠답니다. 몇 년 전에는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의사한테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의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서 의사가 무진장 화를 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니 담배 한대 피자고 우겨서 결국 담배 피고 수술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담배도 자신을 이기는 결연함을 실천하기 위해 몇 년 전 끊었습니다. 예수쟁이 아들이 미국에서 왔는데도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염불을 틀어놓고 108배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손자 손녀 재롱 전도도 안 통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안 할 테니 딱 한번만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소개받은 목사 인도로 예배를 드렸

지요. 저와 인숙이는 눈물 콧물 쏟으며 감사 찬송 “예수우리 왕이여”를 부르고 초등학교도 안간 동민이 승민이는 멀뚱 멀뚱했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마땅한 표정 이었죠. 저는 그때 예배 중에 우리 엄마 아빠 쓰러뜨릴 줄 알았는데.... 영 분위 기 어색하게 끝났지요.

엄청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엄마 아시나요? 김정심 이에요.

불교신자로 절에도 갔었는데 지금은 안가요.

제가 전화로 예수 믿고 교회가라고 하면 전화 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한번은 “엄마 예전의 성태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라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날 밤 한잠도 못잤답니다.

제가 “엄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싶어도 못보고 만날 수도 없이 멀리 떨어져 살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울 엄마는 “성태야 다음 세상에 또 만나는 것은 욕심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답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른 욕심은 안부려도 그런 욕심은 부려도 돼!” 라고요.

작년 아버지 학교 간증 듣고 김하철 목사님이 꽤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부모에게 전도 편지를 보냈네요. 너무 고마워서 12월 아들 동민이 졸업식에 우리 엄마 오면 같이 식사 대접 하려고 했는데 몇 주 전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김하철 목사님 편지에 엄마가 저에게도 이렇게 답장을 보냈네요.

성태야!

성태 네가 내 아들이라 감사하고

수천리 타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잘살고 있어 감사하고, 한 가정 이루고 건강하게 잘 살아 가고 있어 감사하고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삶이라는 연극을 구경하며 여기 까지 왔구나.

구름과 바람들이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오고 해와 달이 몇 천 번이나 뜨고 지는 흔적을 모르고 여기 까지 왔구나.

성태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자 쿠나.

성태야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각자의 정해진 길을 가는 일 인가보다.

곧은길 굽은 길 오르막길 이런 길 저런 길 세상길을 열심히 갈 때까지 걸어보면 하나님 만날 날도 오겠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기도하면서 어미가.

엄청 좋은 하나님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 만나 주시면 앓되나요?

아버지 학교

손인숙 집사

어스틴 1기 아버지학교 손성태 형제의 아내 손인숙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동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삶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저이기에 이 자리가 제겐 놀라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빛나는 눈동자로 인해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버지학교는 저와 저희 가정에 은혜와 감사와 감동과 행복과 화목의 선물입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고...남편이 먼저 행복했고 그 사랑은 저희 아이들과 제게 흘러 들어 왔습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아픈 곳이 치유되고 사랑과 화목으로 가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구나...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아버지학교로 제게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두 장의 아버지 학교 신청서

아버지 학교가 소개되던 주일예배를 마치고 저도 모르게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두 장의 아버지학교 신청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 장도 아닌 세 장도 아닌 왜 두 장일까?”

생각하는 순간 두장의 백짓장에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모르게 누구인지 모를 두장의 아버지학교 신청서의 주인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부부가 섬기고 있는 목장모임에서 남편이 아버지학교를 소개하며 이제껏 다닌 학교 중 아버지학교가 가장 좋았다는 말에 울컥 감동했습니다. 그때의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지금도 제 마음에 심겨져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최집사님을 만나면서 그 집사님의 연애스토리를 듣게 되고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기도할 때에 남편이 지금까지 다닌 학교 중 아버지 학교가 가장 좋았다는 말에 지금도 제 마음에 심겨져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최집사님을 만나면서 그 집 사님의 연애스토리를 듣게 되고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기도할 때에 남편이 지금까지 다닌 학교 중 아버지학교가 가장 좋았다는 말과 남편과의 연애스토리가 떠오르며 기도가 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목 : 그 이름 아버지

초등학교 때, 왼쪽가슴에 옷핀으로 콧물 닦을 손수건을 달고 1학년 1반 교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동네 추석 콩쿠르 구경 가자고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빨간 잠바로 한껏 멋내고 그가 찾아왔습니다. 땡~찔습니다. 포천 최초의 야타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숙제를 핑계로 덕수궁전시회에 가자고 버스에서 친구를 통해 쪽지를 건네 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대학교 때, 군대 제대 후 우연히 친구를 통해 나의 이름을 듣고 10초간 시간이 멈추었다며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애인 있니?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 이 미모에 애인이 없겠니?

아버지 학교 때 나는 그의 아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닌 학교 중 아버지학교가 최고였다고~

나는 기억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해같이 빛나던 그의 얼굴을~

지금도 두 장의 아버지학교 신청서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 오셨다는 것ですよ. 저에게는 두 장의 아버지학교 신청서가 넘어져있고 쓰러져 있고 잠자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로 일으키시는, 주님이 내 미신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그동안 설레고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기뻐하고 감동한 주님과 데이트로 참 행복했습니다.

두 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라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품을 잘 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가 귀하고 축복된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에게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불씨는 영원히 살아있어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쩌다 가끔 그 빛이 흐려질 때도 어머니의 성품을 품은 아내가 돕는 자로, 협력자로, 또 동역자로 옆에서 항상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지만 같은 뜻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화목에서 가정의 화목으로 이웃의 화목으로 흘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것을 아버지학교의 아버지들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증문

어느 한 순간

전춘우 집사

한 줌의 모래를 쥐고 허공에 팔을 내밀었다. 가늘게 모래실이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로 빠져나와 날리었다. 이 손에 쥐는 것은 삶이다. 시간이고 나의 목소리이다. 조금씩 내 손을 떠나 바람에 날리었다.

텔레비전에서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잊었지만, 순간과 영원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를 다룬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아름다움이 순간이고 추억은 찰나라도 그 아름다움이 가슴에 남는 이상 영원하다는 그 말, 어린 나에게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참 매력적으로 들렸었다. 그리고 시나브로 나의 평생의 탐구가 되어버렸다.

인간은 어떻게 순간을 영원하게 느끼고 영원을 순간에 불과하다고 느끼는가? 세네카의 말처럼 어떻게 인간은 욕망에는 영생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두려운 것들에는 필멸자처럼 떠는가? 영원이란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이기에 순간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나는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꼈던가? 어느 한 순간, 그 시간대에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한다. 그 때가 영원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공원에 가서 하늘 끝까지 닿는 고공에서 낙하하며 현실이 무너지는 감각의 스릴을 느끼려고 하고, 지루한 일상을 잊고 싶어서 일탈하려고 하는구나. 생과 사가 흔들리고 표시판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돌 때, 감히 겁도 모르고 짜릿해 하는구나.

나는 확실히 그 시간대에 존재하였다. 설명하기 힘든 한순간의 행복감은 나를 방황하고 흔들리게 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과 느꼈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겐 그 강한 애착도 찰나 같기에 더 이상 현실과 비현실을 저도 모르게 굴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녀보다 30분 먼저 퇴근해서 약속 장소로 갔다. 먼저 가는 것은 알았지만 서둘렀다.

나는 그날 저녁 그녀보다 30분 먼저 퇴근해서 약속 장소로 갔다. 먼저 가는 것은 알았지만 서둘렀다. 뭔가 수수한 꽃다발이라도 사고 싶어서 운전 중 내내 눈동자를 굴렸는데 가면서는 그녀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갔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타이 음식점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타이티를 사 들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 저녁은 매섭게 찬바람이 용서 없이 몰아쳤기에 가을 코트로는 부족해서 찢절맸다. 레스토랑 안에서 기다려도 됐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오는 모습을 놓칠까 봐, 그리고 바보 같지만 기다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일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다. 나는 개의치 않고 밖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녀가 오면 들려주고 싶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되새겼다. 리허설하고 다시 또 하고 암송하듯 달달 외웠다.

왜 그때 나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나는 그녀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비밀을 공유했다.

우리는 그날 많이 걸었다. 그녀는 많이 웃었고 또 보이지 않게 울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들려주던 기억이 난다. 다만 그때도 나는 철저히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다.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소크라테스, 나는 그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보였죠. 당신은 그때 죽음의 광야에 서서 하루 종일 무엇을 보았죠? 그 순간 무엇이 당신을 영



원히 바꾸어 버렸죠? 왜 당신은 죽음의 변론을 했죠? 왜 당신은 도망가지 않았나요?

나는 그때 그 순간 소크라테스처럼 신의 신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떠난 것이다. 길고 긴 여정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았다.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엽고 사랑스러운 나 자신을 만났고 기나긴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대다수의 인간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용서를, 감사를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그때의 나와 달라졌는가? 아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만을 알게 되었다. 지혜의 값을 치르는 것은 매우 혹독했다.

바울은 모두가 스테반을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의 걸 옷을 맡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유별난 사랑에 대해서 일절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절대적이었고 수 천 년간 그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절대신에

대한 신뢰와 그 안에서 살려는 테두리가 되는 율법이 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죽어가고 있었다.

마태와 삭개오도 사랑을 하였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만 사랑하였다. 자신들을 경멸한 자들은 미워하였다. 그래도 최소한 그들은 자신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원 앞에서 뭉개져 흐트러질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부를 때 망설임 없이 쫓았다.

순간과 영원에 대한 탐구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멸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아니,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나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욕심이 많고 거짓말쟁이고 의심쟁이이니까. 예수님의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에 손을 넣으며 물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 신이여 당신을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허락한 상황을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길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아, 그렇습니까?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까? 이렇게 하면 죽어 있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였고, 레위인도 그리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달라고 돈을 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들 중 누가 이웃이냐? 누가 진정으로 사랑한 자이냐?

이같이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 안에 살리라.

그러나 랍비여,

인간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모르시나이까? 사랑은 유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르시나이까?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르시나이까? 당신의 전제 조건부터 틀렸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분노에 목이 막혔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오직 단지 그때의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가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를 보내 주십시오. 차라리 미륵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를 보내 주십

시오. 고통이 팔천 겁 반복되더라도 내생이 없더라도...

당신은 내버려 두지 않고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십니까?

왜 비용을 지불하고 갚아주십니까?

친애하는 나의 간증을 읽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오늘 당신들은 저의 머릿속을 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간증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겠지요. 당신들은 그 전의 저를 모르니까요. 아주 거짓말을 잘했어요.

거짓이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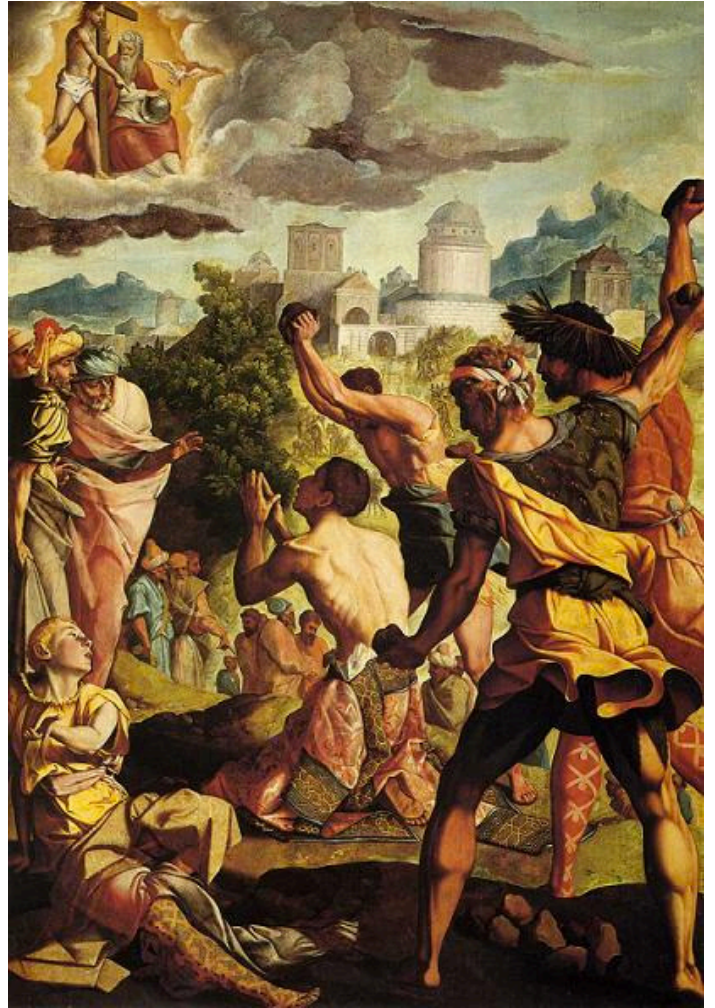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누군가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진실로 진실로 말을 해주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때

진리가 자유케 하지 못할 때, 진리를 말함을 믿지 못할 때

그를 두어 사마리아인이요, 또는 귀신 들렸다 하시겠습니까? (요8:48)



진리가 순간을 자유롭게하고 영원토록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당신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며, 자유의 날개로 구속 된 삶에서 날아가기를 빌며...

청춘은 축복인가요, 아픔인가요?

김정민 형제

여러분의 청춘은 행복하신가요? 사람들은 젊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젊어서 좋겠다” 하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물한 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의 청춘에 게 세상이 선물해준 거라고는 서툰에 뒤따라오는 험한 말과 행동들,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세상이 주는 고생이 이러한 아픔이라면 조금 더 성장한 어른이 돼서 마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은, 저의 할아버지가 저를 앞에 앉히시고 제 눈을 지그시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행복하자.” 할 아버지의 이 말씀이 품은 많은 뜻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글을 통해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땐 큰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이 말하고, 어린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나사 항공우주국 건물 맨 위층에서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잘은 모르지만 멋진 일을 하고 있을 저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2학기를 끝낸 2018년 4월 2일, 저는 신분문제로 시민권을 따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 어릴 적 꿈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아무리 과정이라지만 짧지만은 않은 5년의 군생활. 현실 속에 조금씩 작아지는 희미해지는 나의 꿈. 이렇게 저는 열아홉에 부모님 곁을 떠나 멀리 독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나름 어른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잖아. 사람들이 나는 무식해서 군대 체질이라고 했어!” 저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미주리주에 있는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평소에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자신은 세상에 놀려 한없이 초라해졌고 늘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 누구에게든 전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하찮은 놈이었습니다. 부모님 안에서, 모두에게 사랑만 받던 저였기에 누군가에게 험한 욕을 들으며 비굴한 행동을 받았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몸과 마음은 너무 지쳤고 저의 패기와 자신감은 점점 작아져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그릇에는 조금의 양도 넘치듯이 누구에게는 저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어리석은 불평처럼 들리겠지만, 제 작은 그릇의 한도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밤새 울었다는 말과 함께 건넌 이별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주었고, 꿈과 자신감을 모두 잃은 저에게 청춘은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힘든 훈련기간이 조금 지나 어느 주일이 되었을 때, 훈련교관님께서 이제부터는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쁨 보다는 책임감으로 교회로 나섰습니다. 6월여름 긴 소매의 군복을 입고 30분가량 줄을 맞춰 행군해 가야하는 교회길이 즐겁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날의 예배 후, 이 길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고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수 많은 군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목사님께서 가벼운 인사 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입대하고 처음 훈련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익숙한 듯 어색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에 따라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드렸지만, 피곤함에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익숙한 찬양노래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Blessed Be Your Name.”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곧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남성들의 목소리에 끼어 큰 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 “맞다 캘리포니아로 선교 갔을 때도 불렀었는데.. 하하..” 웃음은 잠시, 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려왔고 오랜 시간을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외치며 울었습

니다.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찬양이 은혜가 돼서 울음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찬양들을 부르고 있음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에,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저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전 11:9).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랑의 삶을 담으라고 예쁜 도자기로 빚어 주셨는데, 세상 안에 더러워져 하찮은 삶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석입니다, 그러니 돌처럼 살지 맙시다. 이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꿈을 꺾시다. 우리의 밝은 미래에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맙시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청춘은 축복입니다.

편집자 이야기

2020년도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을 훌쩍 지나 중반을 향해 치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는 아쉽다는 아타까움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역병으로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다시하번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고 바꾸는 역병의 위세도 흘러가는 시간은 어찌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벌써 겨자씨 여름호가 나왔으니깐요. 특별한 은총으로 겨자씨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간증문과 컬럼, 또 여러 모양으로 원고를 제공하는 성도님들과, 또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편집위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나눈 이 자리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과 아픔을 나눔으로 인해 더욱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지요?

행복행의 연속은 우리들이 삶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행복... 그러나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주님과의 특별한 비밀을 이 겨자씨 지면을 통해 발설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글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오고 또 지게 될 수많은 계절처럼 겨자씨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원고로 자양분을 얻습니다. 자양분이 없는 나무는 말라버리듯 원고가 없는 겨자씨는 그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고와 또 그 원고를 나누고자하는 사랑과 용기를 기다립니다.

We have our king of the season passing by without much of joy. However, since we remember God always keeps us in contact with Him even in this difficult, untact living, we receive strength and joy in Him. Trees never be trees but just withered bush without nutrition. Likewise, Mustard will stay healthy only by the continuous supply of the words of gospel and testimony. We all know our life is a woven cloth with happiness and suffering. Sharing yours with others will strengthen our community with understanding, learning, and prayer. We are waiting

for your contribution and your contribution will make a difference. God is good. Please send us your contributio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Spanish is also welcome. He is also seeking English editor for the Mustard. Please step forward and be a part of all who inspire our church to grow everyday.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의 이메일로 사업체명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고 아울러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을 알려드립니다.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2020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AKPC) 교육학교 조직도

(당회 교육 1부위원회: 지정인 장로)

1.주일학교

영유아부 (0-36 개월):

이희정 간사

유치부 (만3-5세):

곽은희 전도사

유년부 (1-5학년):

이정민 전도사

중고등부 (6-12학년):

서진 전도사

(이성민 집사/김효진 집사)

2.토요한국 학교

영유아부는

- 0-3세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을 배울수록 있도록 지도합니다.

- 현재 25명 안밖의 영유아가 영유아반에 함께 합니다

시간표	10:00 - 10:30	자유롭게 모이는 시간
	10:30 - 11:00	예배 기도, 어린이 찬양과 율동, 교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
	11:00 - 11:20	간식
	11:20 - 11:40	Activity (생일 어린이가 있는 경우 생일 자녀 축하)
	11:40 - 12:00	어린이 찬양과 율동
	12:00 - 12:20	교재를 통한 공과놀이
	12:20 - 12:45	선생님들과 함께 마무리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
	12:45 -	귀가 시간

유치부는

-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성경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God’s People),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 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것을 배우게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간표	10:00 - 11:10	한국학교
	11:15 - 12:10	경배와 찬양 (매월 첫주마다 새 찬양을 배우고 찬양해요) 기도송 말씀선포 말씀암송 헌금송및 기도 광고시간 및 환영송 주기도문송
	12:10 - 12:40	공과시간
	12:40 -	귀가 지도

유년부를 소개합니다

1. 교육 목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벧후3:18)
2. 시간표
 - 예배 시간 11:15-12:10 (2층 소예배실)
 - 성경 공부 12:10-12:30 (2층 각 반 교실)
 - 성가대 10:00-11:00 (유년부 성가대실)
 - 찬양팀 10:00-11:00 (유년부실)
 - 기타반 10:00-11:00 (A/B 반)
3. 섬시는 이들
 - 부장 여영규 집사/김형자 집사
 - PTA 회장 최영지 집사님/PTA 부회장 백기숙 집사님

AKPC

RADIATE YOUTH MINISTRY (청소년부)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 Gen 1:3

VISION

Build up young believers who are committed to Christ and the local church by doing *life* together (i.e., discipleship) to radiate the gospel of Jesus.

WORSHIP INFO

SNL	SUN
Time: 7-9 PM (Time will change to 6-8 PM starting March)	Service Time: 11:15 AM Bible Study: 12:40 PM
<small>*All youth services take place in the youth chapel</small>	

MINISTRY INFO



Demographic
Radiate Youth Ministry serves around 90 students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6th through 12th grade).



Teachers
Currently there are 14 teachers that serves with the youth. Teachers are always needed for weekly Sunday Bible study! Interested in serving the youth? Contact Pastor Jin Seo.



Got Questions?
Email: seojin24@gmail.com
Phone: (949) 517-8085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토요한국학교** 는 신앙 교육과 우리나라 말과 글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내 학교입니다.

1. 학교 비전

-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 우리나라 말과 글을 사랑하고 할 줄 아는 어린이
-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2. 학교정보

- 학기 (기간); 봄학기(1월~5월), 가을학기 (8월~12월)
- 수업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 수업 내용; 한글 성경, 우리 나라 말과 글, 역사및 문화

3. 2020 봄학기 소개

- 학급 수; 총 8반
- 학생 수; 총 46명
- 중·고등부 자원봉사자 수; 총 20명

4. 자녀 신앙 교육과 한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 김호진 (hellozini@gmail.com)



AKPC 2020년 주요행사 일정표

월	주일	절기	주일 행사	주간 행사	EM & 청년 & 교회학교	
4	5	사순절 제6주	성찬식	성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4/6-11)	EM/Youth Joint Good Friday Service(4/10)	
			정기당회	성 금요일 특별예배(4/10)	EM/KM Young Adults – Treaty Oaks Outreach (4/11)	
				연합찬양대 특별 수난 찬양(4/10)		
				전교인 금식 및 이웃돕기 구제헌금(4/10)		
	12	부활절	부활주일(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합동예배) 연합찬양대 칸타타	선교기금 마련 및 친교 춘계 골프대회(4/18)	어스틴 한인 “부활절 연합 새벽기도회”	
	19	부활절 제2주			갈렙회 봄소풍(4/25) Summer SAT 설명회(4/25)	
	26	부활절 제3주			EM Senior Banquet(5/2)	
	5	3	부활절 제4주	어린이 주일 행사		갈렙대학 종강예배/발표회(5/8)
				정기당회		Youth Senior Banquet(5/9)
				청년부 졸업자 축하 행사		
10		부활절 제5주	Mother's Day			
			Mother's Day Concert			
17		부활절 제6주	새가족 환영회 #1		UT College Graduation Ceremonies(5/22-23)	
24		부활절 제7주	갈렙회 건강 검진			
	중고등부 PTA					
31	성령강림주일			VBS (6/1-5) 해외단기선교 (니카라과)(6/6-13)		
6	7	성령강림 후 제1주	정기당회			
	14	성령강림 후 제2주	Sunday School Dept/Youth/EM Promotion Sunday		Summer SAT 개강(6/15) 중고등부 Retreat (6/18-20)	
			Father's Day		청년부 아틀란타 단기선교(6/27-7/4)	
	21	성령강림 후 제3주	제직회 #2			
28	성령강림 후 제4주					

AKPC 지역 광고

Tous les Jours
Austin

512-373-8080
6808 N Lamar Blvd Suit B-115
Austin TX 78752
www.tljus.com
tljaustintx@gmail.com



Kakao Talk ID: @hanyangmarket Email: austinhanyangmarket@gmail.com

MARKET Hanyang

Tel: 512.371.3199 6808 N. Lamar Blvd
Fax: 512.371.3250 #A-110
Austin, TX 78752

Cuppa Austin Coffee Shop

\$1.00 OFF ANY DRINK

9225 West Parmer Lane
Austin, TX 78717

www.CuppaAustin.com
512-382-6729



Universal Motors/Services
Asian Imports & Domestic Service Since 1993

David Chong
ASE Certified Technician

24 HR TOWING

A/C Service 7138 Hwy 290 E.
Brakes & Tune Ups Austin, TX 78723
Engines & Transmissions (512) 459-3939

Questions? Comments? Find us on Yelp!

A+SM
Dry Cleaners & Alterations

Same Day Service Available
30+ Years Experience

Mon-Fri 7am-6:30pm
Sat 10am-2pm
Sun/ Holidays CLOSED

(512) 249-9013

8701 W Parmer Ln. #2122
Austin, TX 78729
Inside Artisan Apartments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전 수 중 공인세무사(EA), MBA
명성 세무·교육 LLC
Tel. (646) 525-5900

Hightone Tax & Ed LLC
13800 Lyndhurst St. #135 Austin, TX 78717
smpchun@gmail.com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전 11:1)

주/일/예/배

- 1부** 오전 8시 30분
- EM** 오전 9시 45분
- 영유아** 오전 8시 30분
- 2부** 오전 11시 15분
- 중고등** 오전 11시 15분
- 유치유년** 오전 8시 30분
- 청년** 오후 1시 15분

주/중/예/배

- 월-토** 새벽예배 - 오전 6시
- 화** 화요기도회 - 오전 10시 30분
- 금** 금요찬양기도회 - 오후 8시

교/회/학/교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토요 한국학교	토	오전 10시
장년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시 45분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EM 영어성인	주일	오전 11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 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 512-454-1727 / Fax 512-454-6888
 HP www.akpc.org /
 email akpc@akpc.org

